2월 '이달의 책' 후보도서

《한국사회, 어디로 가나?》 조대엽 · 박길성 지음 | 굿인포메이션 | 312쪽 | 값 15,000원
'권위'의 실종. 작금의 시대에서 크게 회자되고 있는 현상이다. 과연 전환기 한국 사회에서 권위와 권위구조의 변화는 어떠해야 하는가. 책은 1부에서 사회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권위구조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탐색하며, 2부에서 시민사회와 국가, 시장에서 나타난 권위구조의 변화를 조망한다. 3부에선 좀더 구체적 생활 저변, 즉 가족과 교육, 그리고 세대간 의식구조에서 권위구조의 변화를 읽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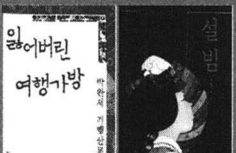
《길위의 책》 강미 지음 | 푸른책들 | 216쪽 | 값 8,800원
제3회 푸른문학상 '미래의 작가상' 대상 수상작으로서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는 교양소설이자 성장소설이다. 제임스 조이스의 《애러비》, 김원일의 《어둠의 혼》,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신경숙의 《외딴방》 등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만한 작품들이 가득하며, 〈길버트 그레이프〉 등 영화와 책의 만남도 시도하고 있다.

《근대 네이션과 그 표상들》 황호덕 지음 | 소명출판 | 526쪽 | 값 32,000원
근대의 두드러진 '현상'인 민족, 곧 네이션은 문자와 국어, 이를 영토화하고 담론으로 형상화시킨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책은 이처럼 네이션의 표상화된 도구와 이미지를 천착하며, 이를 위해 민족 담론과 국어, 국민국가의 재현, 번역과 문체, 문자의 영토화 등으로 분별하며 그 의미를 캐내고 있다.

《수상한 식모들》 박진규 지음 | 문학동네 | 336쪽 | 값 9,500원
단군신화에서 따온 '호랑 아낙'이란 기발한 설정이 돋보이는 소설. 쑥과 마늘을 먹으며 결국 웅녀로 태어나는 곰과는 달리, '호랑아낙'은 일종의 이단이라고 할까. 신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뛰쳐나온 '호랑아낙'은 한국사회의 주류적 가치와 역사 해석에 반기를 든다. 실제로 '호랑아낙'이 변신한 '수상한 식모'들은 부르주아 가정에 잠입, 그들의 위선을 까발리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잃어버린 여행가방》 박완서 | 실천문학사 | 254쪽 | 값 9,800원
박완서의 기행 에세이집. 작가는 국내외를 여행하며 눈에 잡힌 인생과 자연의 모습을 또다른 의미의 삶의 여정과 오버랩시킨다. 1부에선 남도, 하회마을, 섬진강 벚꽃길과 쌍계사, 오대산 등 우리 산하를 돌아보며 갖게된 외경심을 표출하고, 2 · 3부에선 작가의 개인적 체험과 함께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에티오피아와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소감을 곁들이고 있다. 4부에선 그 결과 갖게된 해오解悟 속 순례기가 소개된다.

《설빔》 배현주 지음 | 사계절 | 30쪽 | 값 10,500원
설빔을 차려입는 아이의 흥분과 함께 전통 한복을 차려입는 법을 예쁘고 알기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나가는 그림책. 아이가 혼자서 차근차근 치마저고리 입는 법을 터득하며, 머리단장까지 해내는 과정이 차례대로 소상히 펼쳐진다. 촛대나 보료, 반닫이 등과 같은 우리네 옛적 장식품의 묘미도 함께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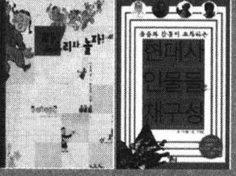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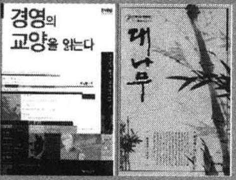
《내 마음의 무늬》 오정희 지음 | 황금부엉이 | 246쪽 | 값 9,500원
중견 작가 오정희가 오랜만에 펴낸 산문집. 소설가이자 한 남자의 아내이며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그녀의 치열한 삶이 오롯이 담겨 있다. 글쓰기에만 심취했던 문학소녀 시절과 아내와 엄마, 그리고 작가로서 정신없이 살았던 30대 시절, 그후 자유와 고독 사이에서 방황한 중년 이후의 삶을 섬세하고도 담백하게 풀어낸다.

《문학소년, 논리소녀를 만나다》 (전2권)김성기 외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1권 304쪽 · 2권382쪽 | 1권 값 11,000원 · 2권 값 12,000원
'문학소년'과 '논리소녀'의 문답형 서술을 통해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하는 문학작품의 정신과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과 현직 교수들의 세계문학에 대한 심도 있고 포괄적인 해석이 특징이다. 고대에서 18세기까지 동, 서양의 문학을 다룬 1권과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서양문학, 새로운 세계의 문학 경향까지 다룬 2권으로 구성되었다.

《판소리와 놀자!》 이경재 글 | 윤정주 그림 | 창비 | 206쪽 | 값 9,800원
'윤실'이라는 아이가 전통 판소리를 익히고 원리를 깨치는 과정을 엮은 책이다. 동편 판소리 '흥보가'의 전수자인 전인삼 선생과 그 제자들을 모델로 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판소리 특유의 추임새와 가락의 멋을 느끼며, 일반인들도 어렵잖게 판소리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현대사 인물들의 재구성》 고지훈 글 | 고경일 그림 | 앨피 | 468쪽 | 값 18,000원
이승만과 김구, 신익희, 조봉암, 조병옥, 이기붕과 김종필, 그리고 민주화의 영웅 김주열, 박종철, 전태일, 분단 극복의 열정을 불살랐던 문익환, 임수경 등 현대사 고비마다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했던 이들의 얘기를 색다른 구성으로 엮은 책이다. '절대권력의 맞수 되기', '절대권력의 2인자 되기', '절대권력의 조력자 되기' 등 6가지 테마로 이루어졌다.



《경영의 교양을 읽는다》 이동현 지음 | 더난출판 | 666쪽 | 값 30,000원
지난 한세기동안 경영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온 명저 30권을 엄선해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5명의 경영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이들 명저들을 고르고, 소개하고 있어, 경영자들은 물론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눈여겨볼만한 내용들이다. 단순히 경영이론과 철학뿐 아니라 대중적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는 양서다.

《대나무》 이어령외 24인 지음 | 종이나라 | 344쪽 | 값 30,000원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문화적 공통 분모를 이루는 것들은 무척이나 많다. 대나무는 그런 공통적인 문화코드를 상징하는 많은 존재 가운데 하나다. 책은 '종교, 사상으로 본 대나무', '문학 속의 대나무', '미술로 본 대나무', '생활속의 대나무', '오늘날의 대나무' 등 5편으로 나눠 대나무를 통해 본 한중일 세 나라의 문화적 접점을 소개한다.